

광주 유통업체 70% “알리·테무·中 플랫폼 위협적”

광주상의, 소매 유통업체 47곳 조사
10.6% “中 진출 확대, 최대 현안”
3분기 체감경기 ‘부진 지속’ 전망
“인건비·금융·물류비 등 큰 부담”

광주지역 소매 유통업체 10곳 중 7곳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같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0.2%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는 물론 향후 잠재적인 경쟁상대’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도 앞으로도 경쟁해야 할 상대는 아님(21.3%)’, ‘지금은 경쟁상대지만 향후에는 아닐 것(6.4%)’, ‘잘 모르겠음(2.1%)’이라고 답했다.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도 응답업체 중 10.6%가 ‘중국 온라인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를 꼽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먹구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가 ‘2024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7로, 지난 분기(80)보다 7p 개선됐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는 방학·휴가시즌, 명절 등 시기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한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민간소비 부진 및 업계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데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급성장 등 채널 간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란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3분기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인건비, 금융, 물류비 등) 비용 상승(29.8%)’을 꼽았으며, 이어 ‘시장경쟁심

화(21.3%)’, ‘고금리 지속(21.3%)’, ‘상품 매입가 상승(12.8%)’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국내 소비시장 전망에 대해선 가장 많은 48.9%가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상반기와 비슷할 것(42.6%)’,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8.5%)’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은 모두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업체들의 대응 현황을 묻는 질문엔 ‘저가상품 확대(25.5%)’,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음(21.3%)’이라는 답변

이 가장 많았으며, ‘포인트 환원 등 구매자 혜택 강화(14.9%)’, ‘판매가격 인하(12.8%)’, ‘PB상품 강화(1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금리·물가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와중에 중국 유통업체들까지 국내 산업을 잠식하면서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지역 유통업체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최소한의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며, 기업들 또한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된 시장 공략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 레인부츠·코트 ‘장마용품’ 인기

장마철 가전·패션용품 수요 급증

올 여름 역대급 강수량의 장마가 계속되면서 패션용품과 가전용품 등 장마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다양한 장마용품을 선보인다.

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올해 장마를 앞두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제품은 레인부츠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서 자리한 ‘헌터’는 영국을 대표하는 레인부츠 브랜드로 지난 6월 입점 후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한달간 해당 브랜드가 예측한 매출액의 170%를 달성하며 장마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긴 장마로 눅눅해진 실내 습기를 제거하려고 제습기를 찾는 수요도 늘었다. 광주신세계 본관 8층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제습기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삼성전자는 올해 6월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장마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장마용품을 준비했다. 특히 MZ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레인코트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을 반영해 레인코트를 마련했다.

본관 7층 ‘아이더’에서는 남녀공용으로 착용가능한 ‘라이트 레인코트’를 선보인다.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아이더에서 출시한 제품답게 내구성이 강한 나일론 소



광주신세계가 장마용품 구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레인부츠·레인코트·제습기 등 다양한 장마 대비 품목을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재로 만들었으며 소매가 탈부착 가능해 기능이 뛰어나다. 베이지와 네이비 등 4가지 색상이 있으며 장마철을 맞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등산 등 아웃도어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가성비 레인코트도 만날 수 있다. 본관 5층 지오다노에서는 일명 ‘한소희 레인코트’로 불리는 제품을 2만원대에 판매 중이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장마가 이어지면서 레인부츠와 레인코트 등 장마용품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장마 때 필요한 가전제품과 패션용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광주신세계에 고객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토스뱅크, 공동대출 사업 본격 추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3분기 출시...은행간 최초 사례

광주은행이 토스뱅크와 손잡고 공동대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토스뱅크 사옥에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광주은행-토스뱅크 공동대출 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혜택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이 그동안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이 결합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로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대출한도와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중인 공동대출 서비스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로, 대출한도는 50:50 비율로 공동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올해 3분기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이 출시되면 광주은행은 지역 영업망에 국한되지 않고 토스뱅크의



광주은행은 지난 5일 서울 토스뱅크 사옥에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광주은행-토스뱅크 공동대출 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망 확대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토스뱅크는 광주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으로 안정적인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등 두 기업 모두 ‘윈윈(win-win)’의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동대출은 은행간 대출업무 위수탁 최초의 사례로서,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반에 ‘빅블러(Big Blur)’를 만

들어 갈 전망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양 은행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이어, 상품 출시를 위한 긴밀한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노동 칼럼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석 달째 임금 지급이 자주 늦어져서 불안하다. A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늦어지고 있어 더 걱정이 크다.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 받은 임금은 없어서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하지만 동료들은 임금 체불이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하러 불안하게 계속 일 하나면서 A씨에게도 함께 그만두자고 설득한다.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 센터로 연락을

해주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이 180일 이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첫 번째 조건은 해당이 되었으나, 두 번째 조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해고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불안하여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자진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 사직에 해당하더라도 몇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있다.

A씨의 동료는 임금 지연 지급이 3번 발생한 상태라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체불의 기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체불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는 크게 아래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이연주
공인노무사

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보자.

첫 번째 경우는 5월 1일 임금을 7월 1일까지 전액 받지 못하거나, 1월부터 매달 임금이 10일씩 늦게 받아 지연 지급된 기간이 60일 이상인 때를 말한다.

두 번째 경우는 5월 1일에 받아야 하는 임금 전액과 6월 1일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월 2일에 퇴사한 때를 말한

다. 세 번째 경우는 5월 1일 임금 중 70% 미만만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한 상태에서 7월 3일에 퇴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A씨는 임금을 지연 지급받고 있는 상태로, 각 임금의 지연 기간이 60일을 채우지 못하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임금체불 2개월이라는 문구만 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부르게 자진 사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라.